

“고성군에 납품 실적 없어 2중 피해”

재생아스콘 부실공사·특혜 논란 새국면 ... 속초시 관계자 “A·B제품 품질 차이 없어, 납품실적 때문”

[속보] 재활용골재(재생아스콘)를 기층재료 사용한 도로의 표면이 갈라지는 크랙 현상이 발생해 부실공사와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본보 8월22일자, 제27호 보도) 가운데, A업체 관계자가 특혜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속초시도 B제품을 계약했다가 우리 제품이 더 좋다는 것을 알고 재계약했다”고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재생아스콘 계약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속초시청 관계자는 24일 전화통화에서 “B업체에서 특허 받은 제품을 사용해줄 것을 의

외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성군에 납품한 실적이 전혀 없다는 점이 발견돼 실적이 있는 A제품을 사용한 것뿐이지,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A업체 관계자가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 자신들과 계약을 한 것처럼 말했다면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두 제품의 특허는 같은 사항이어서 품질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우리가 납품실적이 없는 점에 대해 난색을 표하자, B업체가 이해하고 중간에 포기한 것”이라

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업체 관계자는 “속초시가 A업체의 제품을 사용한 것은 품질 차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 제품이 고성군에 납품한 실적이 없기 때문인데도 마치 제품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주장한 A업체 관계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도 있다”며 “고성군이 특정 제품에만 특혜를 주기 때문에 우리 제품이 납품되지 못하고 있으며, 속초시에 납품을 해보려고 해도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꺼리기 때문에 2중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광호 기자



고성군은 지난 25일 군청 상황실에서 민간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간보조금 투명성 높인다

고성군 민간보조사업 개선 토론회 개최

고성군이 지난 25일 군청 상황실에서 불필요한 민간보조 사업에 대한 지원 중단 및 축소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보조사업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간보조사업 편성대상 사업 부서별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동일한 목적으로 매년 보조금을 지원 신청하거나 단체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보조 사업을 추진하는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또 예산 편성기준에 의거 성과관리카드 및 성과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일물제를 적용하는 등 실효성과 투명성 확보방안을 논의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관련부서 토론회를 통해 민간보조금의 효율적 운용과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승근 기자



공무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시상

고성군이 지난 9일 실시한 ‘2011년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에서 이선국 죽왕면장 등 8명이 입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IT 관련 지식, 국가 정보화정책 등에 대한 필기시험과 전자문서를 편집하는 워드프로세서 작성 등 실기과목으로 진행됐다. 이번엔 입상한 8명은 30일 실시되는 강원도 정보화경진대회에 고성군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사진은 지난 24일 시상식 모습. 최광호 기자

강원도 지정 으뜸 음식점

염광활어횃집 여름 시즌 大바겐세일

Summer Festival (7월 1일 ~ 8월 31일)

세꼬시 30,000원	산낙지 15,000원
우럭 15,000원	광어 15,000원
성게 10,000원	개불 10,000원
물회 10,000원	명게 10,000원
소라 10,000원	오징어 10,000원

200명 300석을 갖춘 저희 거진항 ‘염광활어횃집’은 모든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성실하게 모시겠습니다

※ 영업시간 : 오전 9시~밤 12시 / 7.23~8.23 : 24시간 영업

염광활어횃집 대표 조선영 실장 김정환 ☎ 682-3131, 682-0051